

뒤틀린 역사와 뒤틀린 시각

이문열의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

이문열의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를 읽으면서 답답함이 뇌리에서 씻겨나가지 않고 나를 괴롭힌 것은 소설 속에서 내 과거의 일부분을 들여다보는 듯한 괴로움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나의 시각으로 사물을 이해하려 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던 시기의 나를 말이다.

이 소설은 우리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가상의 역사인데 가상의 출발점은 이렇다. 고종의 자결로 수만마리의 용이 이천만의 가슴 속에 박히게 되는 그 장려한 落日 이후, 우리민족은 일치단결하여 25년간 전쟁을 벌인 끝에 일본을 내쫓고, 통치는 없고 관리만 있는 이상적인 오늘을 건설한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은 동서로 분단된다는 데서 가상의 두번째 출발점이 열린다. 일인칭인 화자는 금춘장군(김일성:필자)과 목자박사(이승만)가 관동(남한)과 관서(북한)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되기까지의 정치적 행각을 너스레를 치며 이야기한다.

이쯤에 이르르면, 우리는 일본을 빌어 우리 분단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듯한 씩씩한 기분에서 사로잡히게 된다. 어느 한 시점에서 역사를 가상하고, 뒤틀린 역사를 이웃나라에 투영시키는 기발한 형식을 통해 작가는 과연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려 했는가? 그것은 민족주의의 절대성과, 이념과 변혁운동에 대한 냉소나 불신 이상은 아닌 듯하다고 말하면 지나친 혹평일까.

소설 속에서 화자는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의 고비를 이렇게 말한다. 고종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을 찾게 되어 민족대단결을 이뤄냈다고, 현명한 민족인 우리는 온갖 사비비 이념으로 치장한 허깨비를

을 몰아냈다고.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는 누군가의 영웅적 투쟁의 결여로 분단되었는가? 혹은 국민이 현명하지 못해 분단되었던가?

작가의 열렬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민족통일을 이룬 소설 속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뜨겁게 속삭이지 못한다. 우리의 아픈 현실을 조소하고, 수복전쟁 당시의 왜군을 단순하고 성급한 성격으로 묘사함으로써, 식민지사관을 바르게 극복하기는커녕 비참함과 함께 오히려 황당하고 객관성을 잃은 독설이라 느끼게끔 한다.

“민족은 영원하고 이념은 순간이다. 어찌 순간이 영원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러한 논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어떻게 정치에 유린당하는지는, 실제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다(민족의 자주성을 숭상하여 '신탁통치결사반대'를 외치던 이승만일당은 민족주의 노선을 이용하여 결국은 단정을 수립하였고 분단체제의 구축을 낳았다. 유럽을 발각 뒤집었던 나폴레옹도, 2차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민족주의를 내세워 집권하게 된 것이다). 민족주의가 나쁜게 아니라, 감성적인 민족주의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나쁜 것이다.

또, 나 자신 다 트이지 못한 눈으로 있지만은(작가는 평론가 성민업이 이문열소설을 '전망의 부재'라 평했던 부분에서 화를 참지 못했지만), 작품 말미에서 몇몇 민족민주단체의 실천 방법론상의 오류를 전체운동권의 세계관의 오류인양 인식하는 부분을 보며, 나를 비롯한 작가를 아끼고 작가의 가능성을 기대한 독자의 마음은 한결갈을 것이다. 말없음표로.

신혜금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가락ATP 19동 408호

낙태 찬반론에 대한 철학적 검토

황필호의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이 책은 황필호 교수가 낙태를 주제로 써어진 11개의 논문을 편지한 것이다. 편저자는 머리말에서 한국이 '낙태천국'이라 불릴 만큼 낙태가 성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한국만의 산아제한과 낙태에 관련된 독특한 현상을 지적한다. 첫째,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낙태되는 태아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다. 둘째, 산아조절의 수단으로 피임보다는 간단한 불임수술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향은 국가의 가족계획정책에 의해 권장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산아제한을 둘러싼 정부와 개인간의 갈등이다. 정부가 산아제한을 지지하는 경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낳을 수 있고, 낙태를 금지하는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부딪힌다.

이러한 낙태현상의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 편저자는 낙태 문제가 종교적·의학적·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철학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낙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상황윤리에 근거해서 낙태의 찬반론을 전개하면서 찬반론의 근본적 가정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찬반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철저히 파헤친다.

낙태반대론에서는 태아가 인간임을 강조하면서 낙태를 살인이라 규정한다. 그러나 낙태는 살인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태아는 자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한편 태아는 자의식이 형성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이냐 아니냐를

규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낙태찬성론에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고정된 역할을 강요당해 왔으며 여성의 인권이 태아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일시적인 편리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런데 낙태반대론자들도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되었을 때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을 때에는 낙태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 강경론자들은, 낙태권은 제3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산모가 9개월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지 않는다. 산모는 출산후에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낙태로 자녀에게 다칠 불행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과, 불행은 예고하더라도 태아는 계거당하기보다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이러한 가운데, 타협을 통해 논쟁을 완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명론자와 선택론자가 등장한다.

이 책의 논문들은 미국 철학자들이 쓴 것이므로 우리의 현실과 다소 유리된 점도 있으나, 이 책 이후에 한국 실정에 맞는 논의가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동욱

서울시 구로구 독산 본동 986-8 5/4

밝은 책 서울 중로구 충신동 25-36 학원빌딩101호 전화 744-7658(대)

<p>밝은시선 ①</p> <p>좋은 시를 읽는 것은 모짜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젊은날의 큰 기쁨이지요. 지금 서점에서는 슬프게 따뜻한 시인 하나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시거든 모짜르트와 함께 커피 한잔 하시지요.</p> <p>이철영 지음 값 · 2000원</p>	<p>내詩, 젊음의 초상</p> <p>밝은에세이션 ①</p> <p>박영한 · 황동규 · 정현중 · 양귀자 · 김주영 · 이성복……</p> <p>우리시대의 知性 36명이 쉽게 살려하지 않는 그대에게 드리는 고급 문학에세이!</p> <p>김광규 외 지음 값 · 3400원</p>	<p>버린적이 없다</p> <p>밝은콘트선 ①</p> <p>평범한 샐러리맨 29명의 비범한 콘트 모음집! 근무시간에 즐기고 있는 사람은 술꾼이 아니라 이 책의 독자로 봐 주십시오.</p> <p>이호순 외 지음 값 · 3000원</p>	<p>입 좀 닫아주세요</p> <p>밝은콘트선 ②</p> <p>섬광처럼 짧은 애기 강물처럼 긴 여운... 최창학 교수가 소설에서 남겨두었던 또 다른 이야기 콘트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p> <p>최창학 지음 값 · 3000원</p>	<p>첫밤, 추위, 너털웃음</p>
---	---	--	--	----------------------------

☞ 밝은책에서는 90년대 시문학을 이끌어 나갈 젊고 역량있는 신인들의 원고를 찾습니다. 시 쓰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시집 출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화해의 틀에 담긴 '추악한 과거'

정찬주 「새들은 허공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새들은 허공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에서 나타나는 작가 정찬주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하다. 조용해서 신비주의적이기까지 하다. 그의 목소리는 가끔씩 끊어지기도 하며 잘 들리지 않기도 한다. 새들이 허공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종이에 깊이 묻히지 않고 먼지처럼 쉽게 부스러지거나 페이지 사이로 떠오를 것만 같다.

3·8선이나 금남로가 또는, 3·8선과 금남로가 동시에 연관되어 그의 얘기거리가 되고 때로는 전혀 정치적인 것이 아닌 개인의 갈등이 얘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찬주의 목소리는 3·8선과 금남로 부분에서 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의 화해는 아무래도 사회체제의 갈등으로 인해 마모된 개인의 갈등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겨울南行」에서 준세와 여자는 금남로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두명의 상처와 갈등을 형규가 동시에 화해로 이끌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형규의 고등학교시절의 얘기가 나온다. 담임선생의 강압에 혼자서 손을 들고 책임을 뒤집어 쓰는 형규의 기억은 하나의 화해의 방식으로 상징된다. 절에 숨어 있던 준세가 출가를 결심하는 것도 그러한 비극의 일종이다. 여자의 등 뒤로 보이는 계곡이 눈발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 눈은 또다시 녹아 번 가슴같은 계곡을 드러낼 것이 예정된 것으로서 이것은 정찬주의 화해의 목소리가 조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취방울꽃」에서는 3·8선으로 인해 편이 갈라져야 했던 한 민족, 즉 우리민족의 비극과 금남로의 비극이 동시에 갈등으로 얽힌 얘기가 다. 3·8선에 의해 재능을 살릴 수 없었던

할아버지. 그리고 북이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할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 巫病을 앓아야 하는 어머니. 그리고 중년의 남자 덕분에 하반신 불수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순구. 금남로에서 죽어야만 했던 삼촌.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나. 이 작품은 이렇듯 고통과 신음소리로 가득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또 한번 더 깊이 침묵함으로써 끝남으로써 조용해지고 신비주의적인 얘기가 된다. 삼촌의 천도제와 머리에 구멍이 뚫린 중년사내의 유골이 어머니의 巫病으로 인해 찾아짐과 동시에 어머니의 병도 낫는 것으로서 화해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풍경」과 「무문사에 가서」 「北으로 흐르는江」, 그리고 「夢外鳥」에서도 화해의 방식은 큰 차이가 없다. 「풍경」에서는 동생의 울음소리 같은 풍경을 허공을 향해서 힘껏 집어던지며, 「무문사에 가서」와 「北으로 흐르는江」에서는 눈물로서, 그리고 「夢外鳥」에서는 '허공 그 어디에서도 새들의 발자국은 없음'으로서 화해의 방정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찬주의 목소리가 새롭게, 잔잔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은 그의 전 작품을 통과하는 불교적 세계관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그의 작품은 격렬하거나 낯선 화해의 제시가 아닌 '苦病에 대한 味覺'을 조용히 제시하는 한 계단 더 성숙으로 내려간 화해의 개론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삶이 고해라고 말하는 불교를 화해의 틀로 삼은 것은 분명 정찬주의 솜씨다.

이동민
서울시 노원구 상계 9동 637번지

'당신'을 향한 꿈꾸기와 길찾기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

서점의 거대한 서가에서 이성복의 세번째 시집을 보고 일순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무살의 봄날 즈음에 「똥구는 돌은 언제 잡개는가」를 보고 녹슬고 복잡한 기계장치 같다는 느낌을 받고 난 지 오년, 나는 그동안 그의 고통의 단어와 詩句 몇개를 떠올리며 처연한 절망에서 포복으로 기고 있을 때마다 소나기 같은 위로를 받곤 했다. 한데 그 세번째 시집의 제목이 「그 여름의 끝」이라는 데 적지 아니 놀랐다. 아직도 초여름이고 긴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여름의 끝」이라니. 「그」라는 대명사가 과거라는 시제를 심층의미하고 있지만 아이러니에 대한 나의 유별난 흥미감이 책을 사게 만들었다.

이성복의 20대는 아픔의 덩어리였다. 그 연유는 불행한 가족사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인간의 무감각해짐에 대한 탄식이기도 하고, 공통 같은 세계앞에 선 자신의 무력감이기도 하다. 곳곳에 아픔의 상처로 명들었던 그의 젊음, 아픔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아픔으로 뒹굴었던 그의 분노는 난해했지만 뼈저리는 감동을 선사했다. 그 후 「남해금산」에서의 그의 '치욕'은 "아픔을 개인사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공적 차원으로 되물을 때" 생기는 것으로 시인의 가슴속에 묵직하게 담겨지고 있다. 이때부터 그는 깊은 꿈속으로 들어간다.

「그 여름의 끝」에서 그는 꿈에 정원을 만든다. 그 꿈의 정원에는 '두개의 꽃나무가 있고, '몸부림치는 숲이 있고, '젖은 날개로 날아오는 새도 있'으며, 모든 것과 단절된 '섬'도 있다. 그는 그곳에서 '당신'과 '어머니'를 찾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삼을 짚어 얼어 붙은 연뿌리를 캐는' 우리들의 환상을 극복하는

현실속의 '당신'이며, '어머니'는 '달빛없는 수풀 속에 혼자 계시는' 서러운 '어머니'이다. 이성복은 비로소 꿈꾸기에서 깨어나 '피범벅이 된 세상이 고기를 어그적 어그적 씹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성복의 길찾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당신'에게로 가는 무수한 길이 여럿 갈라져 있고, '당신'과 시인 사이에는 길의 숫자만큼 많은 간격과 길의 거리만큼 큰 시간차이가 있다. 시인은 길을 찾으러 길을 떠난다. 어린 목동이 소를 끌고 진리를 찾아가는 십우도와 마찬가지로 당신을 데리고 당신을 찾아간다. 결국 그는, 깨닫는다. '당신속으로 깊이 들어 갔을 때 나는 아직 당신의 바깥에 있음'을, 곧 '당신은 내곁에 있지만 내곁에 없음'을 알아차린다. 그는 현재 불교사상으로 빠져 들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용운의 '님'과 그의 '당신'은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집에서 이전의 두권의 시집에 나타나는 고통과 치욕을 불교사상이 깔린 구체적 사랑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30대 후반의 그 여름의 끝에서 그는 절망을 끝내고 '不姓의 살구나무'를 '불을 뿜는 백일홍'으로 바꾸어 놓은 지금, 그의 길찾기가 성공으로 끝날지는 의문이다. 혼란하고 긴 장마가 계속되는 이 시기에 여름의 끝이란 제목으로 시집을 발표한 그의 뜻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시 이런 시대에 흔히 歸하는 지식인의 관조가 아닐지...

문양순
경기도 수원시 신평동 194 ·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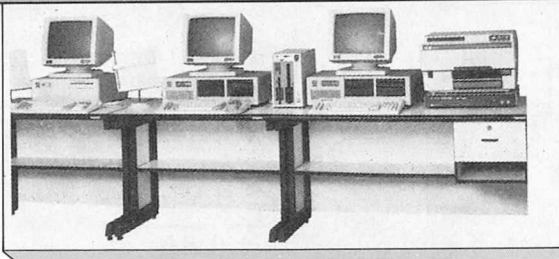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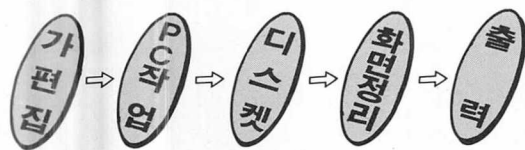
출판의소식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화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프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 등과 서체, 굵수 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화지로 출력가능
- 인화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 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카다록/박 스/학위논문/식순지/사보 및
월간지/각종 안내장/단행본 및 전집류/각종 홍보물제작

